Abstract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옌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및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친환경 미래를 위한 협력

키워드: 국제 협력, 공동 책임,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회복력, 녹색 회랑

보다 청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무역과 산업의 관문인 항만은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의 최전선에 서 있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별적 행동이 아닌,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옌스 마이어는 항만, 공급망 관계자, 정책 입안자 간 고도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기후 중립과 디지털 역량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한다. 사이버 보안에서 수소 인프라, 녹색 회랑에서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까지, 오늘날의 복잡한 과제들은 국경과 산업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와 협력을 요구한다.

항만 당국은 항만 운영의 탈탄소화뿐 아니라 확장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육상 전력 공급 시설 구축, 친환경 연료 지원, 데이터 보안 확보 등 미래 항만의 기술적 토대는 개방성, 회복력,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청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 방향의 일치, 결의가 필요하다.

- 대형 글로벌 허브항뿐 아니라 소규모 지역 항만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지식 공유, 기준 통일,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정한 진전을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 함부르크항과 국제 파트너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세션에서는 협력적 기후 및 혁신 전략의 예시를 제시하고 항만이 협력을 통해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